

“화물연대 파업 첫날, 영향 적어”

국토부, 운전자 참여 적어 물류차질 크지 않아... 큰 충돌없이 집회 마무리

화물 연대의 파업 첫 날은 과거와 달리 비화물 연대 운전자 참여가 많지 않아 물류차질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 운송위원회(CITCA) 소속 15개, 일반운송업체 77개의 8377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운송지시 거부자는 총 16명(0.2%), 운송 미참여자는 1426명(1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운송지시 거부자는 운송회사 운송지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할 경우다. 운송 미참여자는 운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명시적 거부사 없이 개인

적인 사유를 이유로 운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다.

파업 첫 날인 지난 10일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3.8%(인 51만2727TEU)였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 집단행동 영향보다는 사전수송 등으로 인해 반출입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를 57.9%(53만8887TEU)로 양호하며 부산항의 경우도 66.8% 수준이다. 통상 85%에 이르면 차질이 발생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부터 부산 신항과 북항 외항 ICID에서 약 3000명(경찰 추산)이 출동해 참가했다. 일부 간헐적인 운송방해가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정식 이후 야간 선전전, 노숙투쟁 등이 있었으나 경찰력 배치 등 정부의 사전대응으로 불법 운송방해 행위 등이 크게 줄었다”면서 “오늘도 지역별로 국지적인 선전전 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방화, 차량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햇밤 드셔보세요 1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햇밤을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특대 사이즈 100g 당 698원, 대 사이즈 700g 4천980원이다.

경진원, 온오프라인 연계 창업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O2O(온오프라인 연계)시장 확산 트렌드에 부응하고 전북의 새로운 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의 후원을 받아 O2O서비스 창업과 창업 후 마케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을 진행한다.

11일 경진원 관계자는 “O2O서비스가 유통 분야에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제조업체, 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기업에 대한 창업·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되는 O2O서비스 창업·마케팅지원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의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의 일환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3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O2O서비스 창

업·마케팅 지원 사업은 O2O서비스 창업을 희망하는 민34세 미만 창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직무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후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국내마케팅팀(063-711-2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해외명품 페어(Fair)’ 이벤트 진행

오늘부터 16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오는 12~16일까지 5일간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해외명품 페어(Fair)’를 진행한다. 이번 해외명품 페어(Fair)에서는 ‘대한민국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맞아 해외 명품 의류, 핸드백, 지갑, 구두 등 20여개 명품브랜드가 참여 총 30억원 물량의 인기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해외 명품의류(버버리/막스마라/안나수이/디스퀘어드 외) 30~70% 명품핸드백, 지갑, 신발(프라다/버버리/벌버리/페라가모/지방시 외)은 10~6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해외명품 페어(Fair)’는 해외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버버리 핸드백/여성지갑이 각 69만원/45만원, 페라가모 남성지갑 19만9천원 등 품목별 한정상품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이밖에 행사기간 중 60/100/20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3/5/10만원 증정과 주말 3일간 50만원 이상 롯데카드 결제 시 6개월 무이자 혜택 등 풍성한 사은행사도 펼쳐진다.

롯데백화점 박귀라 플로어는 “최대 물량의 행사인 만큼 고객 니즈에 맞는 브랜드를 선정했으며, 차별화된 해외 패션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며 “평상시 눈여겨 둔 다양한 해외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대한적십자 전북지사, 사회공헌 협약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최용구)는 11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와 나눔과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 기부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 기타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용구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인도주의 정신 실현 및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함께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 실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광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전북지역에 따뜻한 나눔을 보내주시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은행 우수 중기 돕는다

신용보증기금과 ‘V-Plus 협약 보증대출’ ‘협약보험’ 출시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V-Plus 협약 보증대출 상품과 전북은행 협약보험을 1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V-Plus 협약 보증대출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V-Plus 협약보증대출과 해당 보증서 대출 금액의 10%이상을 신용대출로 추가 지원하는 추가 신용대출로 구성된 복합형 금융상품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객 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보증서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간 지원하고, 전북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최대 0.7%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미래

가치 및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협약보증서 담보대출금액의 10%이상을 추가신용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듯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비용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출시하는 전북은행 협약보험은 전북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료도 10% 할인한다”면서 “전북은행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자금대출 이용 시 금리를 우대해 준다”고 말했다. /뉴스

하이트진로 ‘맥스’ 생맥주 전량 회수

용기부속 고무패킹 불량 확인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맥스’ 생맥주를 전량 회수했다.

최근 일부 맥스 생맥주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의 항의에 따른 조치다.

하이트진로는 해당 제품을 확인한 결과 생맥주를 보관하는 용기 부속 중 내부 밀봉용 고무패킹에서 불량 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생맥주 용기는 보통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내부 밀봉용 고무패킹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소모품이다.

하이트진로는 일부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만 하자가 발견됐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9월 생산분 전부를 회수·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수도권과 전북 등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하지만 맥스 제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맥스 생맥주 일부 제품에서만 하자가 발견됐으며 맥스 병 제품과 캔 제품에서 역한 냄새나 상한 맛이 난다는 항의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검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원주=이종복기자

심상정 “유한킴벌리, 여름 앞두고 생리대 가격올려 폭리” 주장 제기

유한킴벌리가 그동안 1년 중 생리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름을 앞두고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한킴벌리 가격인상 내부자료(본사가 대리점으로 보낸 자료)’를 입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0년, 2013년, 2016년 등 3년 단위로 6월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화이트 슬림소 30’은 패드(Pad)당 50% 가격이 인상됐다. ‘화이트 슬림소 10’은 패드당 53% 가격이 올랐다. 전체 제품군은 20%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또 지난 5월 ‘깔창생리대’ 논란이 일자 유한킴벌리 측은 생리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과 ‘좋은느낌 수퍼폼’ 제품에 대한 가격만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한킴벌리에서 팔고 있는 나머지 품목들은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7.4% 평균 7%대의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 철회 약속을 어긴 것과 관련해 유한킴벌리 측은 ‘원재료 가격상승과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당시 20% 가격인상을 했다가 철회한 2개 제품은 ‘구제품’이라며 ‘리뉴얼’한 36개와 신제품 8개는 7%대 가격인상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다. 어떻게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된 ‘신제품’이 ‘구제품’보다 인상이 낮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유한킴벌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공정위 측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수입식품 등 원재료 정보 개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원재료 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보 개방을 통해 수입식품 43만174개 품목과 건강기능식품 2만502개 품목의 모든 원재료 정보가 투명하게 개방된다. 그동안은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국, 수입일자, 유통기한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제한된 정보만 개방됐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의 종류, 식품첨가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